

전공 특성별 교수 방법 강좌 개발 연구 Ⅲ

이번 연구 보고에서는 ‘전공 특성별 교수 방법 강좌 개발 연구’에 참여한 이호영 교수가 본인의 개발 강좌인 ‘말소리의 세계’에 대해 직접 소개한다. ‘전공 특성별 교수 방법 강좌 개발 연구’는 지난 2004년도 1학기에 수행된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습지원부의 연구 과제이다. 이 코너는 지난 『가르침과 배움』 제4호부터 연구 과정에서 개발된 교수 전략과 아이디어를 소개하고자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발음 교육: ‘말소리의 세계’

이호영*

필자는 언어학과 전공 탐색 과목인 ‘말소리의 세계’의 교육에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다. 이 강좌에서 필자는 음성학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한국어 · 영어 · 독일어 · 프랑스어 · 스페인어 · 중국어 · 일본어 등 여러 외국어의 발음을 훈련시키고 있다. 필자는 수업 시간에 외국어의 음성을 학생들에게 직접 발음해서 들려주기도 하고, 녹음한 원어민의 발음을 컴퓨터 음성 파일로 편집해서 들려주기도 한다. 그런데 수업 시간 동안의 훈련만으로는 학생들의 청취 능력과 발음 능력이 만족스럽게 향상되지 않는다. 수업 시간에는 배운 발음을 잘 내다가도 다음 시간이 되면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일이 되풀이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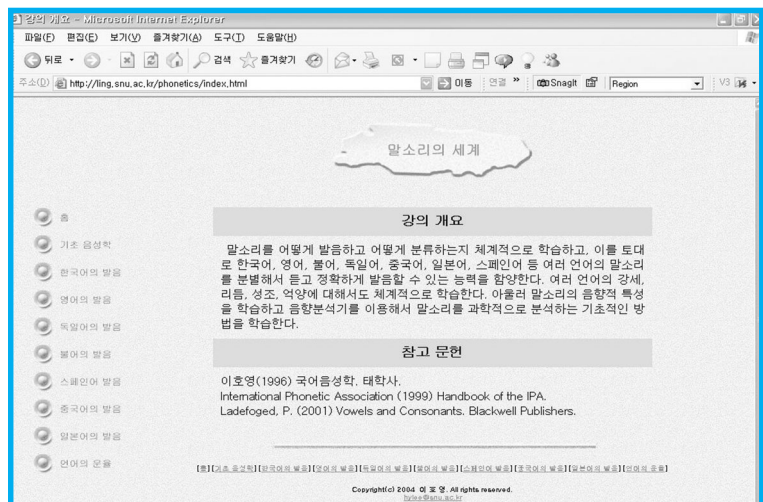
언어 학습은 원어민의 음성을 반복해서 청취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필자는 2004년 1학기에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지원을 받아 ‘말소리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 교수

의 세계'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학생들이 집에서 외국어의 발음을 반복해서 청취하면서 외국어의 발음을 학습하도록 했다. 홈페이지는 수업 시간에 다루는 언어의 발음을 테이블로 만들고 단어마다 음성 파일을 링크시켜 단어를 누르면 그 단어의 발음을 듣고 발음 훈련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인터넷을 이용해 멀티미디어 자을 학습을 시킨 결과 학생들의 반응이 무척 좋았다. 작년 1학기 강의가 종료된 뒤에 실시한 강의 평가에서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학기말 시험 결과, 학생들의 외국어 발음 능력과 청취 능력도 예년에 비해 더 많이 향상된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멀티미디어 홈페이지를 제작하려면 홈페이지 안에 들어갈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고, 웹 에디터 사용법을 배워야 한다. 다음에서는 멀티미디어 홈페이지를 제작해 언어 교육에 활용하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 홈페이지에 링크시킬 음성 파일을 제작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교육용 음성 파일을 제작하려면 음성 자료가 있어야 한다. 원어민의 발음을 직접 녹음해서 음성 파일을 만들 수도 있고, 카세트테이프나 CD



‘말소리의 세계’ 홈페이지 <http://ling.snu.ac.kr/phonetics/index.html>

로 된 음성 자료를 교육용 음성 파일로 변환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원어민의 발음을 직접 녹음하려면 고품질의 녹음 장비가 있어야 한다. 녹음이 부실하게 되면 학생들이 홈페이지를 외면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요즘은 적은 예산으로도 고품질의 녹음을 할 수 있다. 고품질의 녹음을 하려면 좋은 마이크를 구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6~10만 원 정도만 지불하면 좋은 품질의 마이크를 구입할 수 있다. 언어학과에서는 Shure사의 SM-48 마이크를 즐겨 사용하고 있다. 녹음기는 따로 구입하지 않고 사운드 카드를 사용해도 된다. 사운드 카드는 내장형보다는 외장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현재 시중에는 71,000원짜리 사운드 블래스터 외장형 사운드 카드가 나와 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품질의 녹음을 할 수 있다. 녹음의 품질에 신경을 많이 쓰는 분은 가격대가 더 높은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전문가용 디지털 녹음기를 구입해야 한다.

녹음한 음성 자료를 단어별로, 혹은 문장별로 잘라서 음성 파일로 저장하려면 음성 편집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한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Goldwave라는 음성 편집 프로그램을 공짜로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다. Goldwave로 편집한 음성은 웨이브 파일(확장자가 wav인 파일)로 저장한다. 웨이브 파일은 용량이 크기 때문에 윈도우즈 미디어 오디오 파일(확장자가 wma인 파일)로 압축해서 저장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링크시키면 된다. 이 작업도 Goldwave를 이용하면 된다.

카세트테이프로 된 교재에서 음성을 따서 음성 파일로 저장하려면 녹음기와 사운드 카드(혹은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연결해서 아날로그 음성 파일을 디지털 음성 파일로 변환하는 작업을 먼저 해야 한다. 이 과정에도 Goldwave를 이용한다. CD로 된 음성 교재에서 음성 파일로 저장하는 일은 매우 간단하다. CD를 컴퓨터에 넣고 Goldwave를 이용해 음성을 추출해내면 된다. **☞**